

능동적인 행동으로 회원 권익보호에 앞장!



▲ 서산육계지부 이동용 지부장

본고는 양계협회가 설립된 1973년 발족하여 30여년의 오랜 기간 동안 서산시를 중심으로 육계 발전에 이바지한 서산육계지부(지부장 이동용)를 찾아 활동 현황과 향후 지부운영에 대해 들어보았다.

최적의 사육조건

이동용 지부장과 한명희 부지부장, 이현주 총무를 중심으로 결속력이 다져진 서산육계지부는 서산시와 태안군을 중심으로 47개 육계농가가 평균 4만수의 사육규모로 타지역보다 적은 규모이지만, 육계 경쟁력 면에서는 어느 지역 못지 않은 품질을 자랑한다.

서태안분회로 시작하여 현재는 서산지부로 활동하고 있으며 근교에 안면도, 만리포 등 충남 해안에 위치한 지역적 특징상 질병 걱정 없는 청정 지역으로 육계업을 하는데 있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곳 80% 이상의 대부분의 농가가 성화식품과 체리부로 위주로 계약사육을 실시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매달 말일에 개최하는 월례회의의 높은 참여율로 회원간의 의사소통과 상호단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지부이다.

전농가 회원참여 유도

이동용 지부장은 작년 11월 취임하여 올해 목표로 '서산·태안지역 육계사육 전 농가의 회원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크게는 전국 육계산업이 발전되는 것이 첫번째 계획이라

고 밝혔다. 현재 47농가 중 27농가가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회원참여를 유도하여 회원들을 위한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서산·태안지역의 회원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뉴켓슬 백신 100% 지원과 감보로 백신 20% 및 환경개선제 등을 시에서 지원받고 있고, 활발한 활동으로 내년부터 백신 100% 지원을 요청하여 계획이 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육계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부 자체적으로 발효제·생균제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균제는 원료마다 가격차이가 있지만, 보통 kg당 5,000원 전후로 비용면에서 부담스러운 점을 고려하여, 지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사료와 생균제의 혼합급여를 통해 분변의 유해가스로 인한 악취 제거효과는 물론, 분변으로 인한 질병피해도 감소되어 증체율이 높아지면서 폐사율이 감소하는 효과로 지역 회원들의 육계산업에 이바지할 것이라 밝혔다. 능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시에서 첨가제 기계의 지원요청이 승인되었고, 건물, 부지, 운병비 등은 지부 자체적으로 부담하여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육계인이여, 목소리를 높이자!

이회장은 처음에 양돈업을 시작하였지만 개인



▲ 이동용 지부장과 이현주 총무

사정으로 업종을 전환한 뒤로 25여년간 꾸준히 육계업을 하였다. 일을 통해 느낀 가장 시급한 문제는 몇 년 전과 달리 계열회사가 생겨나면서 성적에 해당되는 생산비수수료를 받는 불공정계약문제로 인해 생산자들이 계열사에 끌려가게 된 것을 언급한다.

현 시점에서처럼 수동적으로 끌려가기 보다는, 육계 생산자들이 목소리를 높여 육계·종계인, 유통·계열 업체 모두가 평등한 조건에서 일하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축산자금에 해당되는 공적자금이 실질적으로 계열화 업체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생산자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린 경험이 없었던 바, 백신, 기자재, 발효계사 등이 농가에 직접 지원되어 건강한 닭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말씀을 전하였다.

양계업은 종계, 산란계, 육계로 여러 사람이 뭉쳐 이루어지는 업종이라 향후 양계인들이 한마음이 될 기회를 마련하여 축산인으로써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정리 | 장성영 기자)